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재개되는 '선우논쟁'

'선우논쟁'이 9년 만에 다시 열린다. 1992년, 비구·비구니의 구분 없이 출가 스님들이 모여 승가 내부의 문제를 토론하고 스스로를 재조직하는 공부모임으로 출발한 선우논쟁. 93년까지 5차례 토론마당을 가졌으나 94년 조계종단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승랍 15~20년 전후의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행과 토론을 겸한 공부모임을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40여 명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11월 1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리는 6회 논쟁의 주제는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이다. 출가자에게 있어 수행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출가 정신에 입각해 점검해 보고,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 승가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토론한다.

논쟁의 형식이 철저하게 '차별 없음'을 지향한다. 대표 발제자와 토론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 형식이다. 수행과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개인적 숙덕거림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드러내 놓고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승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는 취지인 만큼 치열한 자기 반성의 표출장이 될 것이다.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토론마당이 될 듯하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고 당부하셨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자기 점검과 타마아발로 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한,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보듯 대학생 불자의 70%가 한국 불교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것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선우논쟁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권형진(취재 2부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5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충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2)937-5679 김포 강화: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울진: 053)353-1196

## 대선주자들 불교문화 큰 관심

북한산 관동로·달라이라마 방한 견해 달라

Hyundai Bulky 8th 현대불교 창간 8주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이 불교문화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 등 불교계 현안 전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불교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본지가 창간 8주년을 맞아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신당 창당 예정인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4인에게 10개 항목의 불교관련 정책을 질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네 후보 중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불교문

◆불교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 의견

후보	불교문화 지원	불교문화유산 개발	북한산 관동도로	달라이라마 방한
이회창	불교계 주도, 정부도 지원	정책적으로 배려	적절한 협의 거처	찬성
노무현	정부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부차원에서 검토	당파의 타협 필요	중국 방문 고려한 찬성
정몽준	후추 국제적 접근 제시	관심 갖고 지원	국가발전 위해 필요	종교·외교적 입장 고려
권영길	특정 종교 편향적이지 않다	차별 배려·특수성 고려	도로 개발 반대	조경미의 허용

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콘텐츠 개발 및 불교문화예산 증액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서민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불교정보화 지원방식은 후보들마다 달랐다. 이회창 후보는 불교계가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자는 방식을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몽준 후보는 후추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의 불교 정보화 지원은 중

교 편향적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북한산 관동도로와 금정산, 천성산 고층철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오류를 지적했으나, 노 후보는 정부와 불교계 측의 상호 양보와 타협을, 정 후보는 국가발전 측면에서 이해조정

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권 후보는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무차별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권 후보가 찬성한 반면, 노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



'가을 사찰 너무 아름다워요' 서울 강남 봉은사는 제10회 보우제의 일환으로 10일 장애인 30명과 독거노인 10명을 초청, 표엑스 아쿠아리움 등을 관람시켜 주었다. 이날 장애인과 노인들은 봉은사 경내도 돌아보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하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국가와 종교계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관련 특집 6·7면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진각종 11월 19일 방북

#### 복지시설 건립 논의

진각종 대표단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은 8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진각종 진산 총의회 의장 등 종단 대표단 5명의 공식 방북을 요청하는 조별편 박태화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 받았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평양컴퓨터강습소 개설 등 복지시설 건립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평불협, 원불교 대표단도 7~10일 북경에서 조별편과 연례 접촉을 갖고 남북불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opia.com

### 세계불교도대회 12월 7일 말려서

세계의 저명한 불교 수행자와 학자 12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불교도 대회'(Global Conference on Buddhism)가 오는 12월 7~8일 말레이시아 세랑고 지방 사일람시 그랜드 블루웨이브 호텔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불교(Buddhism for Richer Life)'를 주제로 열린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세계 불교도 대회는 말레이시아청년불교회, 말레이시아 불교 포교 협회, BGF(Buddhist Gem Fellowship)의 주도로 열린다. 21세기 지구촌의 미래 등을 토론할 이번 회의는 문화와 종교에 따른 차이를 넘어, 불자들 간의 연대와 우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

## 탈북자 정착 불교지원센터 설립

내년 3월 개원, 우수인력 포교사로 육성

탈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불교지원센터(이하 불교지원센터)'가 내년 3월 개원된다.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김대중은 12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4천여만원을 투입해 탈북자 포교기관인 불교지원센터 설립을 결의했다.

불교지원센터는 1, 2차 수용시설 및 정착지 일원에서 탈북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고, 장기적으로 탈북주민 대상의 포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착 기반을 닦는 활동을 펼친다. 또 향후 탈북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포교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차 탈북자 수용기관 하나원에 법회를 개설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사찰방문과 문화체험, 입일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

또 하나원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신행활동이 사찰과 연계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방문팀을 구성, 하나원 수료 탈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0월에는 '탈북주민 사회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한다. 포교사단은 2006년까지 첫 탈북주민 포교사 배출을 목표로 탈북주민 중 우수인력을 지역 불교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포교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28~30일 환경사진전·학술강연회

3국 불교의 유대강화와 동북아 평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5차 대회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은 28일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를 시차로 3국 불교환경사진전시

회와 세계평화합동기원대회,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의에서 3국은 국가별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교류대회 초안 문 작성, 내년도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2-4885 김철우 기자

특집 사찰 특성화 되고 있다 8·9·10면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26면

창간 8주년 기념 이번주 32면 발행

###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cmaster@buddho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석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식을 원하십니까?”

희담 휴대용 방식은 수형상,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희담석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곡빌딩 502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